

“광주·전남 음성 관광콘텐츠 활용하자”

광전연 김만호 위원 “역사 도시” 이미지 제고 도움... 기초조사 등 실제 파악 후 시설 복원해야”

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음성을 새로운 관광활성화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조사, 표시 등을 거쳐 관광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주요 시설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만호 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의 보고서 ‘광주·전남 음성(邑城)의 현황과 활용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전남에 소재한 전통 음성 15곳을 현장 조사한 후, 이를 문화재의 지정여부와 현재의 보존 상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사·도지정문화재(전라남도 기념물) ▲사·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자료 ▲성벽을 일부 보존·복원해 놓은 음성 ▲흔적이 거의 없는 음성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는 낙안읍성이나

주읍성이 해당되며, 사·도지정문화재(전라남도 기념물)는 고흥읍성(흥양현읍성)과 강진읍성이다. 사·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자료는 광주읍성(광주읍성유적)과 진도읍성이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성벽을 일부 보존·복원해 놓은 음성으로는 보성읍성, 순천읍성(순천부읍성), 영광읍성, 영암읍성, 장흥읍성, 해남읍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흔적이 거의 없는 음성은 광양읍성, 구례읍성, 무안읍성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재 지정 여부 및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15개 음성의 현재 상태의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음성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독립적 역사 공간”이라며 “대부분의 음성이 500~6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음성의 성문, 성벽, 관아건물 등은 ‘역사도시’라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음성 활용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가장 중요하면 서도 기본적인 것으로 철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 광주전남 음성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과거 음성의 윤곽을 현재의 지도 위에 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음성과 관련된 인물·사건·사건 등의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표시하고 기억하기’다. 음성의 성문이나 주요 관아건물터에 표시석을 세우고 설명문을 첨부해 음성의 역사를 표시하고 기억하는 단계이다. 성벽이 있었던 자리나 도로의 벽면에 그 흔적을 표시하고 이를 활용해 음성둘레 길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덧붙여 소규

모 유물전시관이나 역사자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음성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단계이다. 낙안읍성이나 나주읍성의 경우 음성의 원형을 복원한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음성을 복원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벽의 일부를 정비·복원해 공원화한 사례도 있다. 현실적으로 복원이 힘든 지역의 경우, 광주의 사례 즉, 광주폴리1이나 ‘사이버광주읍성’처럼 다양한 방식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음성이나 성벽을 복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문구나 주요 관아건물 등을 복원하되 이를 정원화해 매력적인 역사 공간으로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철새 때문에 공항건설 좌초 위기”

흑산도 주민들, 국립공원 해제 국민청원

신안군 흑산도 주민들이 ‘국립공원을 해제해 달라’며 청와대에 청원했다.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립공원 지정은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규제와 차별을 받았다”며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흑산도에는 멸종위기 철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토종 섬사람들도 산다”면서 “철새들 때문에 1만5000여 명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년 평균 50일씩 결항하고, 60여 일은 예정에도 없이 횡수가 줄어드는 여객선 때문에 강제 감속살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연기하면서 보류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행안부, 영광 앵곡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

영광군 앵곡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小)하천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앵곡천 등 14개 시·군 소하천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의 평균 너비가 2m 이상이고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심사 결과 앵곡천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경북 예천군 백전천과 전북 완주군 기당천, 충남 서산시 구진천이 우수상으

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장려상 4곳, 입선 6곳 등 모두 14개 시·군 소하천이 선정됐다.

앵곡천은 인공습지를 조성해 수질 정화와 홍수 예방 효과를 거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콘크리트 제방 같은 치수(治水)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공모전을 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WP “평양 인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익명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운동의 한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의 정찰 위성이 지난해 ICBM을 생산했던 북한 공장에서 새로운 움직임, 즉 시설 안팎으로 차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은폐설 등이 잇따라 보고된 데 이어 미사일 제조 정황도 포착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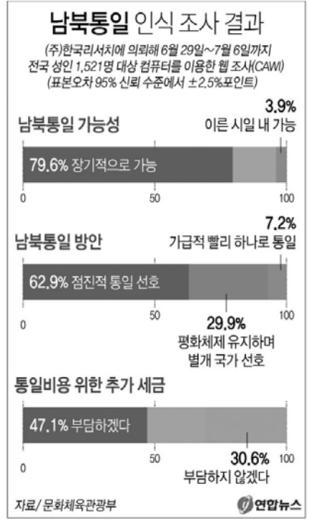
외신들은 전했다.

우선 WP는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증거에는 최근 몇 주간 촬영된 위성사진이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해강 공장에서 비밀리에 ICBM을 최소 1기 이상, 아마도 2기를 제작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확장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더는 핵위협이 없다”고 말한 지 수주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이 고성능 무기를 제조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산운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미 동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ICBM급 화성-15형을 비롯해 북한의 ICBM 2기를 생산한 곳이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명 “남북 통일 가능 ... 비핵화, 대북정책 1순위”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 지난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두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장기적으로라도 남북한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많은 사람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을 놓고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통일이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9.6%, 이

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집계됐다.

향후 남북통일 방안으로는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의견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평화체제를 유지하며 별개 국가가 좋다는 의견도 29.9%로 집계됐다. 가급적 빨리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7.2%였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거나 대체로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

야 할 경우 부담하겠다는 비율(47.1%)이 비율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비율(30.6%)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중복응답)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63.8%)를 첫손에 꼽았다. 평화협정 체결(38.0%), 남북 경제협력(31.6%), 북한 개혁·개방(27.0%), 남북 이산가족 상봉(24.5%)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컸지만,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는 전망이 43.2%로 포기할 것(33.7%)이라는 전망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로 남북 간 협력(70.9%)을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보다 중시했다.

이번 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성인 1천 521명에게 설문한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 655-4840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 연연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